노후 주거리 밀집지역, 주민 손으로 바꾼다

전주시, 교동 승암 새뜰마을 조성 '마을 주민협의회 발대식' 열어… 공동체 활동 나서기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을 주민 손으로 환하게 바꾸는 주민 주도 마을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인 전주시 교동 승암마을을 주민 손으로 환하게 바꾸는 주민 주도 마을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10일 교동 승암마을 야외광장에서 마을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전주 승암마을 주민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 도시 새뜰마을 조성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국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은 주민주도의 마을재생사업인 승암새뜰마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승암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앞서 마련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본격적인 공동체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승암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악기와 수공예 등 주민동아리를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등 주민배움터 운영에 나서게 된다.

또, 주민공모 아이디어 활동을 추진하고, 집수리 봉사단의 만물수리, 승암마을만의 막걸리를 개발하는 주민공작단 운영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승암마을 주민들은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주민자서전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발대식에서는 그간의 주민협의회 구성 및 추진 경과 보고 및 규약 채택, 위촉장 수여, 마을주민들이 준비한 음식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다양한 공동체활동을 통해 승암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국토부 공모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된 이후, 마을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와 주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구축, 마을워크숍,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승암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임시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매주 목요일 총괄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공무원이 함께 모여 마스터플랜에 승암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상을 그려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승암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함께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완산서, 신속체제 간담회 실시

전주완산경찰서는 112타격대 전종요원 미배치에 따른 공백 최소화 및 신속한 테러 및 재난 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일타격대장들과 대원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112타격대 전종요원 미배치는 경찰대개혁의 일환인 현장인력강화에 따른 것으로 7월 10일부터는 타격대장 전출에 따라 본서 직원들로 구성된 일일 타격대장들이 전종요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오늘 간담회는 경비과장주재로 일일타격대장과 대원간 소개 타격대장 근무방법 및 최근 의무위반 사례,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친 일당 구속

"2014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돌며 사기행각 벌여 1억 3천만 원 편취"

교통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 3천만원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0일 사기혐의로 주동자 A(22,남)씨 등 일당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군산, 전주, 서울 등 전국 일대를 돌며 총 24회의 사기 행각을 벌여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 일당은 중국집 배달원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사기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변 선후배나 친구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A씨는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자신의 두 살배기 자녀와 임신한 아내를 동원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및 대로변은 물론이고 비교적 통행이 적은 마을길이나 골목길 등을 가리지 않고 신호위반과 차선변경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일으키면 어렵지 않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고, 경찰 신고를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가입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험사기 일당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교통 법규를 잘 지켜 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사실과 가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도박중독 재정 프로그램 실시

도박자 · 가족 대상 인지행동 치료 · 동기강화 프로그램 지원

전주시가 도박중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고 나섰다.

10일 전주시보건소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문제성도박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법률과 재정, 인지 행동 치료, 동기강화 집단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도박중독문제 재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중독 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강의와 재정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방문해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줄 계획이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향후 오는 10월까지 도박문제 재정 프로그램(2회), 법률 프로그램(3회), 인지행동치료(3회),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3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와 업무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알코올과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재용기자

경찰, 부안여고 성추행 체육교사 검찰 송치

경찰은 전북 부안여고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체육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체육교사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 기말고사가 끝난 지난 7일 해당 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조사에서 20여명이 성추행피해를 주장했다.

이로써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1학년 25명을 포함 총 45여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해당 학교가 방학하는 21일전까지 추가 피해학생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나온 만큼 조사를 통해 A씨에게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전주 평화1동, 복지유관기관과 합동사례회의 개최

전주시 평화1동은 10일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 유관기관 관련자 10여명과 함께 합동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양재 노인종합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화파출소, 평화1동 동네복지팀, 완산구청 사례관리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례회의 대상세대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과 알콜중독증이 있는 아들이 살고 있는 세대로 집안의 불결함으로 인한 이웃의 피해, 두 사람의 병원 입원과 알콜 중독 치료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논했다.

평화1동 임진구 동장은 "이번 사례는 세대에 여러 문제가 얽힌 복합사례였는데 관련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돼 기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주시설공단, 9기 고객만족 모니터단 25명 위촉

전주시설공단은 10일 화산체육관에서 고객 소통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9기 전주시설공단 고객 모니터단 위촉식을 가졌다.

제9기 고객 모니터단은 공단에서 운영중인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승화원 등 전체시설에 대해 직접 현장을 방문, 시설 이용 중 문제점 및 개선점, 직원의 고객응대 및 친절도, 강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안재용기자